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7. Vol. 36, No. 1, 56-63

Original Article
© 2017 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
https://doi.org/10.15842/kjcp.2017.36.1.006
eISSN 2733-4538

The Effect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on Social Anxiety: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Dajung Kim[1] Kyung Ja Oh[2†]

[1]Department of Psychiatry, Sanggye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Seoul; [2]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The present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maladaptive effects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on social anxiety. Additionally, social self-efficacy was examined as a moderator betwee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A total of 179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Participants completed the Korean version of the 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scale,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and Self Efficacy for Social Situation scale.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when self-efficacy was low, the high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al group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social anxiety than the low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al group. However,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ocial anxiety was not observed in the case of high self-efficacy. That is, individual self-efficacy for interpersonal situations moderated the negative effect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on social interaction anxiety. This study could be useful in implementing appropriate intervention plans for socially anxious people with concerns of perfection and competence. The potential implications for clinical ap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also discussed.

Keywords: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ocial anxiety, self-efficacy, maladap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사회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간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타인에게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는지를 주요하게 유념해 두고 가능한 한 자신에 관하여 긍정적인 인상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동기라 할 수 있다(Leary & Kowalski, 1995).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인상을 통제함으로써 자신 혹은 타인이 세워 놓은 기준에 부합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목표지향적 활동, 즉, '자기제시(self-presentation)' 동기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Avia, Sanchez-Bemardos, Sanz, Camillo, & Rojo, 1981; Kimble & Zehr, 1982). Hewitt 등(2003)은 사회적 상황에서 이와 같은 자기제시동기가 극으로 치닫게 되어 자신을 완벽하게 보이고자 하는 개인의 표현적 욕구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라 개념화하였다.

완벽주의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간의 차이는, 기존의 특성적 완벽주의가 '완벽하고자 하는 욕구(need to be perfect)'와 같은 개인의 성격과 태도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는 '남에게 완벽하게 보이고자 하는 욕구(need to appear perfect)'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와 같은 표현적 욕구에 관심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Hewitt et al., 2003). 인간의 성격적 특질에 관한 연구를 통해 몇몇 학자들은, 개인의 성격이 크게 표현적 측면(expressive aspect)과 내용적 측면(content-related aspect)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제기했으며, 각각을 대인관계적 측면(interpersonal aspect), 특성적 측면(trait aspect)과 연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Buss & Finn, 1987; Paulhus & Martin, 1987). 즉, 성격의 특성적 측면과 같은 정적인 측면(static aspect)만으로는 심리적 문제의 발생과 유지를 충분히 설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성격의 대인 관계적 측면을 통합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Wachtel, 1994).

완벽함의 대인관계 표현적 욕구라는 측면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타인에게 자신의 완벽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불완전함을 숨기고자 하는 동기적 요소를 가지게 된다. Hewitt 등(2003)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단일한 차원이 아닌 특성적 완벽주의와 같은 다차원적 개념이라고 파악하고 세 가지 하위

†Correspondence to Kyung Ja Oh,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Korea; E-mail: kjoh@yonsei.ac.kr

Received May 20, 2016; Revised Oct 18, 2016; Accepted Nov 20, 2016

www.kci.go.kr

구성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들 세 가지 하위요인에는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erfectionistic Self Promotion, PSP)', '불완전함 은폐 노력-행동적(Nondisplay of Imperfection, NDP)', '불완전함 은폐 노력-언어적(Nondisclosure of Imperfection, NDC)'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이란 자신의 완벽함을 공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내고 싶어 하는 욕구를 의미하고, 불완전함 은폐 노력-행동적은 공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불완전함이 행동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염려, 불완전함 은폐 노력-언어적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실수나 결함을 공적인 상황에서 인정하기 꺼려하거나 언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Hewitt et al., 2003).

자기제시는 타인의 인정 및 지지에 대한 욕구 또는 사회적 소속감과 같은 대인관계적 욕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Baumeister & Leary, 1995). 그러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극단적이고 자기기만적인 형태의 자기제시 성격적 특성으로, 부적응적인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증적 대인관계 양식과 밀접하게 연관된 비합리적인 자기표현이라 할 수 있다(Hewitt et al., 2003). 특히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은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자 하나 이러한 초기의 의도가 왜곡되어 결국에는 타인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Lee & Seo, 2010), 다양한 심리적 문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타인에게 보이는 자신의 인상 및 수행능력과 이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주된 초점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사회적 상황 혹은 수행상황에서 지속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사회불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보면,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나 타인의 인정에 관해 과도하게 몰두하는 것은 사회적 상황에서 낮은 자존감과 사회적 단절을 느낄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Hewitt et al., 2003; Jain & Sudhir, 2010; Sherry, Hewitt, Flett, Lee-Baggley, & Hall, 2007). Mackinnon과 Sherry (2012)는 특성적 완벽주의 및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주관적 안녕감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완벽해져야겠다'는 완벽주의적 욕구(perfectionistic strivings)보다는 '나의 수행이 완벽했는가, 내가 완벽하게 보여졌는가'와 같은 완벽주의적 염려(perfectionistic concerns)가 주관적 안녕감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Flett, Hewitt, Shapiro와 Rayman (2001)은 모든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하위요인들이 높은 감정적 의존, 강박적 집착 및 낮은 상호작용 적응력과 같은 특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 이러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이성관계 관계 형성, 신뢰, 적응의 저하를 보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사회불안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병리에 취약한 성격적 특질임을 밝히며 두 요인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해 왔다(Flett, Madorsky, Hewitt, & Heisel, 2002; Ha, 2010, 2011; Hewitt et al., 2003; Hewitt et al., 2011; Jain et al, 2010). 그러나 이러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불안의 관계는 그 하위요인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기존에 연구자들이 주로 다루어 온 특성적 완벽주의와도 확연한 특징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두 요인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다루었을 뿐, 그 저변에 구체적인 연관성이나 개인차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들은 아직 부족한 단계이다.

완벽하게 보이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가 자신의 유능함을 바탕으로 실제 이룰 수 있는 능력 및 자신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표출되는 경우와,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중점을 둔 채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방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개인내적, 대인관계적 안녕감 및 만족감에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불안의 발생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절요인으로 자기효능감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을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 판단임과 동시에(Peterson & Stunkard, 1992), 행동 수정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Froman & Owen, 1991). Schlenker와 Leary (1982) 그리고 Leary와 Kowalsky (1995)는 사회불안의 자기 제시 모형을 언급하며,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특정한 인상을 주기 위해 동기화 되어 있으나, 자신이 제시하고자 하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인상을 성공적으로 줄 수 있는지에 관한 염려가 생길 때 사회불안을 경험한다고 설명하였다. 최근 Catalino, Furr와 Bellis (2012)는 Leary 등(1995)의 사회불안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특정한 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개인의 욕구 수준인 '인상 동기(impression motivation)'와 실제로 원하는 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주관적 평가 수준인 '인상 효능감(impression efficacy)'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인상동기가 높은 사람들 중 인상 효능감이 낮은 집단에서는 사회불안이 나타났으나, 인상 효능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사회불안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인상 효능감이 인상 동기와 사회불안의 완충제 역할을 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자들은 높은 자기 기준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비합리적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결과에 대해서도 낮은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 때문에 자신의 결함이나 실수로 인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경험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Lyn, Bieling과 Wallace (1994) 또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수행에 대한 높은 기대를 하는 것 자체

www.kci.go.kr

가 부적응적인 것이 아니라,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기준을 이룰 수 있을지에 관한 스스로의 확신 유무에 따라 심리 상태가 좌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타인에게 바람직한 인상을 주고 싶은 욕구를 넘어서 완벽해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관찰하거나 평가하는지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Schlenker et al., 1982). 이때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면 타인의 평가 및 사회적 상황은 이들에게 위협적으로 여겨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두려움 및 염려를 동반한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보면,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과도한 목표나 이를 이루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염려로 인한 방어적 특성이 단선적으로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높은 기준과 연관된 타인의 시각과 평가를 중시 여기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부족할 시에 상당한 수준의 사회불안을 겪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사회불안 수준이 높아지도록 할 것이다.

가설 2.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즉, 자기효능감이 낮을 경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사회불안 수준이 높을 것이고,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높고 낮음에 따라 사회불안에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학부생 19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전체 참가자 중 설문을 완료하지 않거나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14명을 제외하여 총 179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0.83세(SD = 2.23)이며 성별은 남자가 74명(41.3%), 여자가 105명(58.7%)으로 구성되었다. 실험 참가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연구참가의 보상으로 수강 과목에 대한 크레디트를 지급받았다.

측정도구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Scale-K, PSPS-K)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측정하기 위해서 Hewitt 등(2003)이 개발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를 바탕으로 Ha (2011)가 한국 실정에 맞게 문항을 추가하여 재구성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척도는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SP)',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NDP)',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NDC)'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척도는 총 19문항으로 7점 Likert형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Ha (2011)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5였으며, 각 하위척도별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SP)'은 .88,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NDP)'은 .75,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NDC)'은 .75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7였으며, 각 하위척도별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SP)'은 .87,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NDP)'은 .79,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NDC)'은 .77로 나타났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

대인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겪는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Mattick과 Clarke (1998)가 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를 Kim (2001)의 연구에서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9문항으로 5점 Likert형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된다. Kim (2001)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8-.94로,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2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for Social Situation, SESS)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Gaudiano와 Herbert (2003)가 개발한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Lee (2008)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척도는 사회적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믿음과 관련된 '사회적 대처 기술(coping skill)',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걱정과 사고를 통제할 수 있는가와 연관된 '인지적 통제(cognitive control)', 사회적 상황에서의 초조함이나 긴장감을 통제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정서적 통제(affective control)'로 구성되어있다. 본 척도는 총 9문항으로 7점 Likert형 척도(1점: 전혀 해낼 수 없다 7점: 정말 잘해낼 수 있다)로 평정되고 점수가 낮을수록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Lee (2008)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4였고, 8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8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8로 나타났다.

www.kci.go.kr

https://doi.org/10.15842/kjcp.2017.36.1.006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 참가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활용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고 각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와 변인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독립변인으로서 각 하위요인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성향 정도와 자기효능감이 종속변인인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연구 참가자들이 보고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성별에 따른 점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변인 별 남녀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t*-test 분석 결과, 각 척도의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주요변인 간 상관분석

상관분석 결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총점뿐만 아니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세 가지 하위요인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불완전함 은폐 노력-행동적, 언어적 변인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33$, $p < .01$; $r = .26$, $p < .01$; $r = .34$, $p < .01$; $r = .21$, $p < .0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적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하위척도 중 불완전함 은폐 노력-행동적 요인과만 유의미한 부적 상관, $r = -.18$, $p < .05$,이 나타났고,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또한 유의한 부적 상관, $r = -.42$, $p < .01$,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검증

변인들이 사회불안을 예측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모두 중심화(centering)한 점수를 사용하였다(Cohen, Cohen, West, & Aiken, 2003).

먼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요인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불완전함 은폐 노력-행동적, 언어적 변인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이에 자기효능감을 투입하여 사회불안에 대한 설명력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14.3%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유의한 회귀식을 보였다, $F = 7.85$, $p < .001$. 사회적 자기효능감 변인을 추가하였을 때의 회귀식 또한 유의하였다, $F = 26.60$, $p < .001$. 더불어, 이전 단계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하위요인 중 유의하게 나타난 불완전함 은폐 노력-행동적에 더해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요인이 유의했고, 13.7%의 추가설명력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각 하위척도와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하였을 때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관해 유의한 회귀식을 보였고, $F = 3.99$, $p < .01$, 5.8%의 설명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 척도별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Total ($N = 179$)	Male ($n = 74$)	Female ($n = 105$)	*t*
Perfectionistic self promotion	33.16 (8.29)	32.78 (8.19)	33.42 (8.38)	-.50
Nondisplay of imperfection	21.69 (3.73)	21.70 (3.21)	21.68 (4.08)	.05
Nondisclosure of imperfection	23.82 (6.28)	24.15 (5.98)	23.59 (6.50)	.58
Self-Efficacy	36.61 (6.05)	37.15 (5.96)	36.23 (6.11)	1.00
Social interaction anxiety	45.53 (12.16)	45.66 (12.31)	45.43 (12.11)	.12

Note. a = Mean (standard deviation).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Scales (N = 179)*

		1	2	3	4	5	6
1.	Perfectionistic Self Promotion	1					
2.	Nondisplay of Imperfection	.39**	1				
3.	Nondisclosure of Imperfection	.44**	.21*	1			
4.	Total score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88**	.57**	.75**	1		
5.	Self-Efficacy	.03	-.18*	-.09	-.07	1	
6.	Social Interaction Anxiety	.26**	.34**	.21**	.33**	-.42**	1

Note. *$p < .05$. **$p < .01$.

www.kci.go.kr

Table 3.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Social Anxiety*

	Independent variable	β	ΔR^2	R^2	Adj. R^2	ΔF
Step 1	PSP	.16	.14	.14	.13	7.85***
	NDP	.96**				
	NDC	.22				
Step 2	PSP	.26*	.14	.28	.26	26.60***
	NDP	.66*				
	NDC	.14				
	SSES	-.86***				
Step 3	PSP	.26*	.06	.34	.30	3.99**
	NDP	.68*				
	NDC	.07				
	SSES	-.89***				
	PSP X SSES	-.06**				
	NDP X SSES	.09				
	NDC X SSES	-.02				

Note. PSP = Perfectionistic Self Promotion; NDP = Nondisplay of Imperfection; NDC = Nondisclosure of Imperfection; SSES = Self-Efficacy for Social Situation.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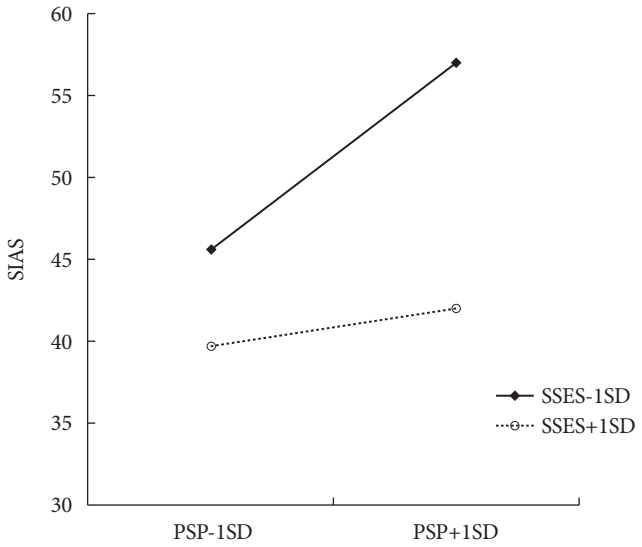

Figure 1. *The effect of PSP and SSES on SIAS.*
Note. PSP = Perfectionistic Self Promotion; SSES = Self-Efficacy for Social Situation; SIAS =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로 살펴보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대하여 완벽주의적 자기노력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이원 상호작용은 유의하였다, β = -.06, t(171) = -2.79, p < .01. 그러나 불완전함 은폐 노력-행동적과 불완전함 은폐 노력-언어적과의 이원 상호작용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β = .093, t(171) = 1.90, p > .05; β = -.02, t(171) = -.62, p > .05 (Table 3).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대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항에 대한 분석 결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1SD 높은 경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높고 낮음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β = .13, t(175) = .84, p > .05. 이에 반해,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1SD 낮은 경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사회불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 .69, t(175) = 4.60, p < .05 (Figure 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완벽주의적 성향과 자기효능감이 평균으로부터 1SD 만큼 높고 낮은 경우에 따라 종속변인인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에 앞서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어 다루고 있는 주요 변인들의 성차는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총점 및 세 가지 하위요인 모두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으로 측정된 사회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Flett et al., 2002, Flett, Greene, & Hewitt, 2004; Hewitt et al., 200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에 취약한 성격적 특성임이 재확인되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타인에게 자신의 완벽함을 확실하게 보이고자 하는 자세가 사회불안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점이다. 즉, 타인의 인정과 지지를 얻고자 스스로에게 과대한 평가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 불안정한 개인내적, 대인관계적 특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자들이 불안을 경험하는 데 있어 이들의 기대가 누구를 향하여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둘째,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사회불안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능력을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과 신념은 이에 따른 개인의 행동 결정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Froman et al., 1991; Peterson et al., 1992), 불안과 같은 정서 상태와도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하며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면,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감이 감소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셋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적 자기효능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하위요인과 사회적 자기효능감 각각의 상호작용을 함께 고

www.kci.go.kr

https://doi.org/10.15842/kjcp.2017.36.1.006

려할 경우, 각각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대한 설명력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효능감이 낮을 경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사회불안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고,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높고 낮음에 따라 사회불안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불안의 자기제시 모형(Leary et al., 1995; Schlenker et al., 1982)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자신이 제시하고자 하는 긍정적 인상에 대한 기준이 높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자들이 지각된 자신의 능력이 스스로의 기대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 여기는 경우 높은 불안을 보이게 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즉,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자들의 사고 및 행동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이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염려나 판단과 함께 이후의 심리 상태를 좌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의 취약한 요소라고 고려할 때, 자신의 능력 및 행동에 대한 믿음과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타인에게 완벽하게 보이고자 하는 욕구는 불안이나 공포, 회피와 같은 부적응적 행동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종합해보면, 높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과 낮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사회불안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요인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비해, 행동적, 언어적 은폐 요인은 자기효능감에 따라 사회불안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자들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심리적 고통의 주원인은 이들이 보이는 방어적 태도 및 은폐 성향이라고 언급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Besser, Flett, & Hewitt, 2010; Flett et al., 2004; Hewitt, et al., 2003). 이를 통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각 하위척도의 개념이 사회불안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신의 불완전함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회피하려는 은폐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전반적인 자기효능감 또한 낮아, 그 수준 차에 따라 경험하는 사회불안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에 비해, '내가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행동으로 내가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와 같은 스스로의 판단에 큰 의미를 두는 완벽주의 자기노력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확신에 따라 사회불안 등의 심리적 고통감 경험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최근 완벽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존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적응적- 부적응적, 기능적-역기능적 측면을 개념화하고 그 유용성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Rice, Ashby, & Slaney, 1998; Slaney, Ashby, & Trippi, 1995).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완벽주의에 관해 성격의 특성적 측면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심리적 문제의 발생과 유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인 관계적 측면을 통합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의 사람들이 사회불안을 느끼게 되는 과정을 구체화하여 살펴봄으로써 두 변인 사이의 연관성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이 보고하는 사회불안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를 통해 완벽주의의 표현적 특징을 가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개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사회불안이라는 부적응적 특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자기효능감이라는 긍정적 신념 수준에 따라 그 발생 수준에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대인관계적 상황에서 보다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예방적 개입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자기효능감, 그리고 사회불안 사이의 관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의 설계 및 결과 분석에 있어 나타나는 몇 가지 제한점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대상이 특정 지역의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특히 높은 성취욕구와 동기의식과 함께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정 연령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측면에서 이들이 가진 특징들을 고려해보았을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에 대한 측정이 모두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결과의 해석에 있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측정값이 이용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닐 수도 있다. 특히 피험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답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 개인이 지각하고 평가하는 자신의 상태가 개인차를 보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자들이 보이는 주된 부정적 정서 중 사회불안에 초점을 맞추어 그 조절변인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나, 이 결과로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정확한 인과관계 및 경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자기효능감이 인지적 변인임을 감안하여, 사회불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이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효능감 이외의 강박 관념, 평가 절하와 같은 인지적 요소와 동기, 무기력 등과 같은 정서적 요소를 포함한 중재, 매개 경로에만 국

www.kci.go.kr

한되지 않은 모델을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Avia, M. D., Sánchez-Bernardos, M. L., Sanz, J., Carrillo, J., & Rojo, N. (1998). Self-presentation strategies and the five-factor model.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2*, 108-114.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Besser, A., Flett, G. L., & Hewitt, P. L. (2010).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trait perfectionism in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0*, 2121-2154.

Buss, A. H., & Finn, S. E. (1987).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trai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432-444.

Cohen, J., Cohen, P., West, S. G., & Aiken, L. S. (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Flett, G. L., Greene, A., & Hewitt, P. L. (2004).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nd anxiety sensitivity.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22*, 39-57.

Flett, G. L., Hewitt, P. L., Shapiro, B., & Rayman, J. (2001). Perfectionism, beliefs, and adjustment in dating relationships. Current Psychology: *A Journal for Diverse Perspectives on Diverse Psychological Issues, 20*, 289-311.

Flett, G. L., Madorsky, D., Hewitt, P. L., & Heisel, M. J. (2002). Perfectionism cognitions, ru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20*, 33-47.

Froman, R. D., & Owen, S. V. (1991). High school students' perceived self-efficacy in physical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6*, 181-196.

Gaudiano, B. A., & Herbert, J. D. (2007). Self-efficacy for social situations in adolescents with generalized social anxiety disorder. *Behavio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35*, 209-223.

Ha, J. H. (2010). A validity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cal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9*, 221-239.

Ha, J. H. (2011).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cale-Korean version. *Korea Journal of Counselling. 12*, 1211-1230.

Hewitt, P. L., Blasberg, J. S., Flett, G. L., Besser, A., Sherry, S. B., Caelian, C., . . . Birch, S. (2011).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cale—Junior Form. *Psychological Assessment, 23*, 125-142.

Hewitt, P. L., Flett, G. L., Sherry, S. B., Habke, M., Parkin, M., Lam, R. W., . . . Stein, M. B. (2003). The interpersonal expression of perfectio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1303-1325.

Jain, M., & Sudhir, P. M. (2010).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nd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in social phobia. *Asian Journal of Psychiatry, 3*, 216-221.

Kim, H. S. (2001). *Memory bias in subtypes of social phob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Kimble, C. E., & Zehr, H. D. (1982). Self-consciousness, information load, self-presentation, and memory in a social situatio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8*, 39-46.

Leary, M. R., & Kowalski, R. M. (1995). The self-presentation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Franklin (Ed.).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pp. 94-112). New York: Guilford Press.

Lee, D. G., & Seo, H. N. (2010). The characteristic of high and low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in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 91-110.

Lee, H. Y. (2008). *The effects of perfectionistic beliefs, social self-efficacy and collective identity on social anx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Lyn, E., Bieling, & Wallace, S. T. (1994). Perfectionism in an interpersonal context: A self-regulation analysis of dysphoria and social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8*, 297-316.

Mackinnon, S. P., & Sherry, S. B. (2012).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tic concerns and subjective well-being: 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3*, 22-28.

Paulhus, D. L., & Martin, C. L. (1987).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capabilit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354-365.

Peterson, C., & Stunkard, A. J. (1992). Cognates of personal control: Locus of control, self-efficacy, and explanatory style. *Applied & Preventive Psychology, 1*, 111-117.

Rice, K. G., Ashby, J. S., & Slaney, R. B. (1998). Self-esteem as a mediator between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A structural equations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304-314.

Schlenker, B. R., & Leary, M. R. (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A conceptualization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92*, 641-669.

Sherry, S. B., Hewitt, P. L., Flett, G. L., Lee-Baggley, D. L., & Hall, P. A. (2007). Trait perfectionism and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in personality patholog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 477-490.

Slaney, R. B., Ashby, J. S., & Trippi, J. (1995). Perfectionism: Its measurement and career relevanc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3*, 279-297.

Wachtel, P. L. (1994). Cyclical processes in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51-54.

www.kci.go.kr

https://doi.org/10.15842/kjcp.2017.36.1.006

국문초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김다정 · 오경자

[1]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2]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기효능감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179명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자기효능감이 낮을 경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사회불안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높고 낮음에 따라 사회불안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의해 중재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자신이 완벽하고 유능하게 보이는지에 대해 염려하며 사회적 상황에 불안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개입 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다. 이 같은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사회불안, 자기효능감, 부적응적 대인관계

www.kci.go.kr